

“종이의 변신...점을수록 매력”

‘종이접기 전도사’ 이지영 원장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데다 두뇌발달에도 도움을 주니 얼마나 좋아요”

40대 중반 이후 늦은 나이에 종이접기를 배우기 시작한 늦깎이였지만 이제는 그 매력을 흠뻑 빠져 종이접기 전도사가 돼버린 한국창작종이문화원 이지영 원장(61)이 말하는 종이접기의 매력이다.

이 원장은 “종이는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특히 평면에서 입체로 변화해가는 과정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종이 한장으로 시작해 조금씩 변형을 더해가다 보면 다양한 입체문양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사고력이 늘기 때문에 유명한 독일인 교육가 프리베른 종이접기를 ‘신이 내린 15번째 선물’이라고까지 칭송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손을 이용하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노인 여가를 위해서도 적합한 취미”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 2005년 안산에서 한국창작종이문화원을 만들어 직접 새로운 방식의 종이접기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일본식 종이접기가 단순 반복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배용준, 수재민 돕기 성금 2억원 쾌척

배용준이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2억 원을 쾌척했다.



배용준의 소속사 BOP는 20일 “배용준이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수재민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용준이 전달한 성금은 강원도 평창, 인제, 횡성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배용준은 “갑작스런 재해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는 수재민들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힘을 내 상처에서 회복되길 바라고 계속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배용준은 지난해 남아시아 지역 지진 해일 피해복구를 위해 세계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3억 원, 국내 소아암 환자와 여성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농협, 강원지역 호우 성금 1천만원 전달



박용순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20일 남평농협 김병원조합장과 함께 호우피해가 심한 농협강원지역본부를 방문,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흥병천 강원도 흥천출향조합장, 진영준 대암농협조합장, 전상호 농협강원지역본부장, 김병원 남평농협조합장, 최석진 전남본부 농촌지원팀장.

내방 장 ▲조기주 〃 부의장 ▲박춘수 〃 운영위원장 ▲박상길 〃 사회 ▲유정심 〃 광주시 남구의회의 의 도시위원장 ▲오기주 〃 사무국장

정년 앞두고 ‘일우문사’ 오픈한 전남대 김춘섭 교수

“받은 사랑 시민에 조금이나마...”

8월이면 김춘섭(65·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정년퇴임 교정을 떠난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고려대 국문학과에서 수학한 김 교수는 광주에 등지를 튼 건 30년 전이었다. 김 교수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연구도 없던 자신을 풀어주고, 제자들 가르치는 기쁨을 안겨줬던 광주라는 도시와 전남대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나를 풀어준 광주·전남대에 감사

김 교수는 학교를 떠나면서 전남대 인근에 제자들과 광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일우문사(日又 文舍)를 오픈했다. 자신의 호를 딴 일우문사는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당이자, 작은 문학연구 도서관이다. 그리고 9월부터 인문학 등 광주시민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진행할 터전이기도 하다.

학교를 떠나는 김교수에게 한 가지 미련이 남

아 있다. 전공 과목인 국문학 등 문학 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함께 병행하지 못한 아쉬움이다. 김 교수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일우문사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글쓰기, 글읽기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요즘 인문학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학강좌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인문학 전반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해요. 몇년 전부터 학교에서 일반인 몇명과 함께 ‘고대 문명 이야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글쓰기·글읽기 강좌 등 개설하려고

김 교수는 일우문사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소박한 ‘연구소’의 역할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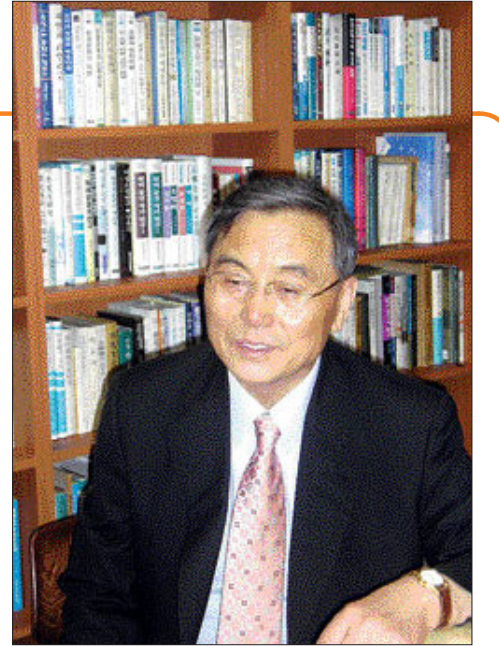
“다른 건 몰라도 영국과 미국의 문화이론서

는 거의 갖추고 있을 겁니다. 또 일제시대 문학 잡지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당시의 문헌텍스트를 공부하는 데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부정이 간행물도 발행해 연구 성과들을 정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 많은 이 찾아주었으면

김 교수는 원래 의대생이었다. 연세대학교 의대 분과 1학년까지 다닌 김 교수는 이상과 황순원 등을 좋아하는 문학청년이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감상적인 대학생이었다. 결국 다시 시험을 치러 고려대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은실이’ 등을 집필한 인기 방송작가인 아내 이금림씨를 만났다.

김 교수의 휴대폰 연결음은 아들 정원씨가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곡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엄정화 주연의 영화 ‘호모비츠를 위하여’에 출연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을 열정



적으로 연주했던 정원씨는 요즘 가장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중의 한명이다.

“아들 덕분에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 중에서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 체류했던 경험을 살려 ‘영국 이야기’(가제)라는 책을 낼 예정입니다.”

김 교수는 일우문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접한 시신 250여구...역울한 죽음 없어야죠”

전북경찰청 1호 검시관 현철호씨

전북지방경찰청 1호 검시관인 현철호(37)씨는 경찰 첫 외무경력자 대상 7·9급 전문검시관 특별채용에 합격해 지난달 19일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일반직 7급)에 배치됐다.

검시관은 살인·자살 등 현장에서 죽음의 법률적 판단을 담당한다.

사인을 판단하고 부검의 필요성을 가려 검사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증거물을 수집한 것이 검시관의 몫이다.

임상 병리사 출신인 현씨가 6개월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교육을 통해 접한 시신은 250여구.

전북지역에 배치된 후에도 7건의 변사 현장에 투입됐다.

변사사건은 교통사고부터 익사, 살인, 화재까지 다양하다.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시신들도 많았다. 현씨는 자기가 ‘아버지’여서 더욱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개에 물려 숨진 11살 난 여자아이를 봤을 때 아들 생각이 나 괴로웠어요. 검시관 스스로 감정이 격해지면 중요한 증거를 못 보는데 당시에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섰죠.”

시신 상태를 살피며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는 손놀림은 전에 비해 많이 능숙해졌지만 망자의 손을 잡아 명복을 비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직도 그대로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인권을 ‘죽음’이고 그 앞에 늘 경외감을 갖는다는 현씨.

현씨는 “역울한 죽음이 없도록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감



시관의 역할이고 보람”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실무를 익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열혈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세리는 나의 神”

‘얼짱’ 최나연, 대선배에 존경심 표현

“박세리 선배는 내게 신(神)과 같은 존재죠.” 20일 부산아시아드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에 출전한 ‘얼짱 골퍼’ 최나연(19·SK텔레콤)은 자신보다 10살이 많은 ‘대선배’박세리(29·CJ)를 그렇게 평가했다.

최나연은 2년의 기간인 슬럼프를 극복하고 미국여자프로골프(KLPGA) 무대에 화려하게 재등장한 박세리의 부활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한다.

최나연은 “(캐디를 맡고 있는) 아빠와 저는 박세리 선배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나연은 “박세리 선배는 제가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거대한 존재”라면서 존경심을 아끼지 않았다.

최나연은 자신도 언젠가는 그러한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세리를 본보기 삼는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광주 문진위 제작 ‘내 마음의 느낌표’

방송대상 TV 생활정보부문 ‘대상’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조동수)와 광주 MBC가 공동 제작한 시민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내 마음의 느낌표’가 20일 한국방송협회에서 발표된 제33회 한국방송대상에서 TV 생활 정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월까지 모두 104편이 방영된 ‘내 마음의 느낌표’는 과제구의 ‘사랑 역에서’ 등 시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등 책, 영화,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다

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에세이다. 또 광주 MBC의 ‘천재음악가 정윤성’은 라디오 다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의 한국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은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방송예술분야) ▲KBS ‘KBS스페셜-외환은행 매각의 비밀’(저널리즘분야) ▲마산MBC ‘압! 활력천국’(특수대상분야) 등 3편이 선정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나상우(전남도 교육청 행정과장)씨 장남 석환(김평장 법률사무소)군 송기만씨 장녀 소은양=22일(토) 오후 2시 오케라하우스.
▲김중기씨 아들 용운군 채수삼씨 딸 원경양=22일(토)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광주 남중(무진중) 21회 동창회(회장 오세중) 월례회=21일(금) 오후 7시 상록화관 4층. 017-602-3684

동창·동문회

▲한국방송통신대 광주·전남지역 총동문회 제 15대 회장단 이·취임식=21일(금) 오후 7시 상록화관 4층. 017-602-3684
▲광주 남중(무진중) 21회 동창회(회장 오세중) 월례회=21일(금) 오후 7시30분 염주동 무진장예물당. 375-3331

모임

- ▲하도은씨 교회원=23일(일) 낮 12시 운남동 황금교회.954-4621
▲무등클럽 월례회=24일(월) 오후 7시 주월동 소도 일식. 676-6669

동창·동문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우리문화교실’ 참가자 모집=초등 4~6학년(학부모 동반)을 대상으로 24일~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문문화관련 체험학습 및 유적 답사. 참가비 5천원(도시락 지참). 신청은 21일까지. 문의 521-9041
▲동문철학원 역리철학 수강생 모집=매주 3회 6개월 과정. 명리학·풍수지리학·성명학. 376-9396
▲장흥군 향우 2·3세 하계 수련

캠프 참가자 모집=향우 2·3세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접수. 선착순 80명. 문의 061-863-1527

▲한미음장애인지원생활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화훼장식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 이상. 매월 11만원 수강 지급. 문의(제)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광주 남구시니어클럽 시험감독관 모집=교직·공무원으로 퇴직한 60세 이상으로 모집 인원은 30명. 062-351-5070, 654-6080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

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휴레션·커피·퀵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곡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춘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외경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부음

▲김영술씨 별세 경모·광모·경속·진속·옹속씨 부친상 최영호·김성철·원종섭씨 빙부상=발인 22일(토)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250-4407
▲조중원씨 별세 한호·용석·용호·은혜·상임·영임씨 부친상 최영·허재석·조병영씨 빙부상=발인 22일(토)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 (062) 521-1100